



울산 광역 시민의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울산광역시지회



울산광역시는 천혜의 온난한 기후를 가진 항구도시로서 총면적은 1,056km<sup>2</sup>에 인구는 약 105만여 명, 4개구 1개군으로 재정자립도 74.6%를 기록하는 한국 7대도시의 하나이다. 특히 울산광역시지회는 울산인구의 33%를 차지하고 있는 남구에 소재하고 있다.

1997년 7월 울산광역시가 경상남도에서 분리 광역시로 승격함에 따라 동년 8월에 울산사업소를 개소하였으며, 1998년 6월에 협회 부설 가족보건의원 개원과 청소년상담실을 개소하여 울산광역시민의 건강증진, 생식보건 및 모자보건사업, 청소년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2003년 1월 지회 설립을 통해 광역시 시책에 발맞추어 보건 복지 사업의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다.

### 생애 주기별로 필요한 검진 예방 사업



울산광역시 거주 임산부 및 산모를 위한 산전·산 후관리와 신생아를 위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예방접종(2003년도 6,676건)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울산광역시의 특수시책사업으로 민간(가정)보육시설 아동을 대상으로 매년 건강검진(2003년도 4,633건)과 아동 성폭력 예방 성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

학교보건법에 의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검사와 성교육, 여중생을 대상으로 빈혈검사, 시특수 시책사업으로 가임기 배우자를 대상으로 풍진검사 사업(2003년도 465건)을 통해 건강한 신체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성 윤리관 정립을 도모하고 있다.

## 암 검진 및 건강진단 사업

정기검진으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직장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진단 사업, 암검진 사업(위암, 유방암, 자궁암, 간암, 대장암), (골다공증 외 4종목), 노인건강 검진 사업을 실시하여 건강유지를 통한 가정해체 방지 및 지역사회 안정을 유도하고 있다. 특히 2004년도에는 장년기 여성(45~55세)건강검진 사업을 통해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비만 검진 사업

2004년도 울산광역시 특수시책 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중학생 48,000명을 대상으로 각 학교별 순회 이동검진을 실시 BMI(체질량지수) 측정에 의해 지질검사와 당뇨검사를 실시, 비만아에 대해서는 올바른 식사습관 및 생활습관 지도와 지회 비만클리닉센터를 통한 운동요법을 실시할 예정이다.

## 열린마음 · 열린공간 청소년상담실

이성교제, 원치않는 임신, 성병 등에 관한 보건교육과 상담을 실시하여 성 문제 발생 예방 및 고민해소와 책임있는 미래관을 가진 청소년 육성에 힘쓰고 있다. 매년 시책사업으로 청소년성교육 캠프와 이동 상담실을 운영하여 청소년을 찾아가는 적극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울산시내 각 초,중학교에서 학생상담봉사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성교육에 관심있는 자모 9명으로 구성된 성교육 연구모임을 결성하여 매주 월요일 오전에 청소년성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공부를 하고 있다. 성교육 연구모임의 활성화를 통해 지회 청소년 사업의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사회 속에서 가협이 성교육 전문기관임을 인식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